

도입
기도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모였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교만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의 나눔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놀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
- 숲 속이나 험한 산 골짜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2. When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I wander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he trees: When I look down from lofty mountain grandeur And hear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3. And when I think that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4.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s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본문 다니엘서 5:22-24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Daniel 5:22-24

22 And you his son, Belshazzar, have not humbled your heart, though you knew all this, 23 but you have lifted up yourself against the Lord of heaven. And the vessels of his house have been brought in before you, and you and your lords, your wives, and your concubines have drunk wine from them. And you have praised the gods of silver and gold, of bronze, iron, wood, and stone, which do not see or hear or know, but the God in whose hand is your breath, and whose are all your ways, you have not honored. 24 "Then from his presence the hand was sent, and this writing was inscribed.

다니엘서 5장은 겉으로는 권세의 정점에 서 있는 왕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한 왕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벨사살의 잔치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의도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함으로써, 무지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적하듯이,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낮추셨고 다시 회복시키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책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진리를 의도적으로 억눌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상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영광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벨사살은 거룩한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권력과 안전을 확인하는 도구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글씨를 쓰는 손은 그와 같은 착각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논쟁하지 않으시고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왕의 삶을 저울에 달아 보실 뿐입니다. '네네, 데겔, 베레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평가를 선포합니다. 벨사살의 날들은 계산되었고, 그의 삶은 저울에 달렸으며, 그의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이 심판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의 삶은 궁극적인 의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것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신뢰해 왔는지를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그 메시지를 해석할 수는 있었지만, 왕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답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진리를 말하고 살아남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벨사살의 부족함이 저울에 달려 드러난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한 자처럼 달리심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결국 모든 독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엇 위에 세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울에 달리게 됩니다. 복음의 소망은 우리가 기준에 도달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자리에 서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aniel 5 presents a king at the height of power who is, in reality, already collapsing. Belshazzar's feast is not simple excess but deliberate defiance. By drinking from the sacred vessels of the Jerusalem temple while praising false gods, he is not rejecting God out of ignorance; he is mocking Him with full knowledge. As Daniel later points out, Belshazzar knew how God humbled Nebuchadnezzar and restored him. His guilt lies not in a lack of evidence, but in the suppression of truth he already possessed. This scene exposes the heart of idolatry. Idolatry is not only the absence of God but it can be the misuse of God for self-glory. Belshazzar does not discard the sacred; he repurposes it to affirm his own power and security. The sudden appearance of the writing hand reveals how fragile that illusion is. Without argument or explanation, God simply measures the king's life. The words Mene, Tekel, Peres announce divine evaluation. Belshazzar's days are numbered, his life is weighed, and his kingdom is taken. This judgment is not about insufficient effort but about foundation. His life, though outwardly impressive, rests on something that cannot bear the weight of ultimate meaning. The judgment exposes what we have trusted most. Daniel can interpret the message, but he cannot save the king. He points beyond himself to a greater answer. Where Daniel speaks truth and lives, Jesus speaks truth and is condemned. Where Belshazzar is weighed and found wanting, Christ is weighed as if wanting—so that those who truly are lacking might be spared. Daniel 5 ultimately confronts every reader with the same question: not whether we believe in God, but what we are building our lives upon. Everyone will be weighed. The hope of the Gospel is not that we will measure up, but that Christ has already stood in our place.

1.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교만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Belshazzar remained arrogant even after witnessing God's work in the life of King Nebuchadnezzar. What are some areas in our lives where we know the truth in our heads, yet struggle to acknowledge God and persist in our own stubborn ways?

2. 벨사살은 성전 기물을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내 만족과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의 목적 어디에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Belshazzar used the sacred vessels of the temple as tools to display his own power. Let's reflect on whether we are using God as a means for our own satisfaction and security. What is the true purpose of our faith?

3.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우리는 모두 부족한 자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내가 노력했던 일들과, 그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신 예수님의 은혜(복음)가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나누어 봅시다.

When weighed on God's scales, we are all found wanting. Let's share how our own efforts to fill our inadequacies have failed, and how the grace of Jesus (the Gospel), who filled that gap on our behalf, brings us true comfort.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날수를 세시고 우리의 무게를 다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벨사살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는 저울 앞에 섰을 때 한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인생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해 그 무게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ving Lord, through today's Word, we confess that You alone are the one who numbers our days and weighs our lives. Keep us from the foolishness of using You as a tool for our own ends, as Belshazzar did. Instead, help us to live each day acknowledging Your absolute sovereignty. Although we are utterly insufficient and lacking when we stand before Your scales, we rely solely on the merits of Jesus Christ, who bore the full weight of our sins on the Cross. May our family not be dazzled by the splendors of this world, but stand firm upon the rock of Christ's grace. We entrust the coming week into Your hands.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1.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Help us to put the truths we already know into practice and become a humble family that always lowers our hearts before You.

2. 무너질 세상 권세나 재물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의 기초를 세우게 하소서.

May we build the foundation of our home upon the unchanging Word of God, rather than on worldly power or wealth that will eventually crumble.

3.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Grant us the grace to boast only in the Cross of Jesus, who accomplished everything for us—the weak and frail who cannot help but be found wanting on the scales.